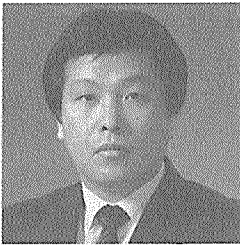


중남미 시장분석과 진출방안



大韓貿易振興公社
地域調査部/美洲課
課長 奇賢舒

I. 중남미 지역경제 현황

중남미는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주요국가 25개국과 카리브해도서국 및 남미대륙북단의 소국 등 8개국을 포함하여 총 3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지역은 포르투갈식민지였던 브라질 및 영국령이었던 벨리즈·자메이카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받아 언어의 동질성이 타지역보다 강할 뿐만아니라 사회지배층은 주로 스페인·포르투갈의 후예인 백인으로써 상호 형제국으로 인식하는 등 인종의 동질성도 띠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중남미지역은 1492년 콜롬부스가 상륙한 이후 스페인·포르투갈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으며 1800년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1820년을 전후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하는 등 역사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남미는 인구 4억4천2백만명, 총 GNP 8,000억불의 시장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16세기 이래 유럽과 연결된 경제체제로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가진 유망시장이다. 동 지역의 경제가 점차 성장추세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측면에서 호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경제성장

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계속 증가할 교역파트너 지역이다.

중남미지역의 경제사적 변천과정은 식민지시대~독립시기까지, 독립이후 1980년대까지,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스페인 및 포르투갈에 의해 16세기에 식민지화된 이후 1800년대 초반에 독립하는 시기까지에는 식민지종주국에 의한 독점적 수탈구조형태로써 종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비시장으로 발달하였으며, 특히 독점권자에 의한 독점무역 형태의 특성을 띠었다. 아울러 대규모 토지자본에 의한 농업생산기지로써 소수토지자본가에 의해 경제가 지배되었으며 생활필수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녔다.

둘째, 독립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의 경제운영은 시장폐쇄 및 사전 수입허가제 실시 등을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유치산업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교육, 의료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사회주의적 경제문화가 정착된 시기였다.

셋째, 1980년대 후반이후에는 대외시장개방정책 및 수입자유화, 외국자본도입을 통한 경제성장,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등에 의한 대외개방 및 세계시장의 참여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II. 최근 중남미 경제의 특징

- 수입수요의 팽창
-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기록
- 경제통합 움직임 활발
-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정책 추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남미국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경제특징중 하나는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정책추진에 따른 수입수요의 급팽창을 들 수 있다.

중남미의 총 수입규모는 1990년에 944억불, 1991년에 1,115억불, 1992년에는 1,320억불로써 3년간 연평

균 18%의 신장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의 수입물량이 급증한 것에 기인하였다.

이와같은 수입증가세의 확대에 따라 중남미 전체의 무역수지는 1991년에 100억불 흑자에서 1992년에는 60억불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1993년에는 330억불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최근 동 지역의 경제특징을 보면 경제성장세가 점차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91년에는 3.5%를 기록하였으며 1992년에는 브라질의 경기침체로 1991년 보다 저조한 2.4%를 기록하였다(브라질을 제외할 경우 4.3% 성장).

1992년의 국별 경제성장율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중남미 지역에서 최고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칠레가 9.5%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경제안정정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아르헨티나, 1988~1989년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한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 등이 6~8%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최근 세계경제의 특징중 하나인 EC 통합 움직임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블럭화의 움직임에 맞추어 중남미지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멕시코와 칠레는 1991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멕시코·베네수엘라, 콜롬비아는 1993년말까지 협상종료를 목표로 G3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원산지 규정 등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으며 특히 남미대륙 남단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산업간 분업체제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94년말까지 통합안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지향에 의한 경제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장개방 및 수입자유화 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서 멕시코는 1986년에 GATT에 가입하고 1989년에 사전 수입허가제를 폐지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은 1990년 이후에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장개방을 주로 독과점체제로 유지되어온 국가경제를 경쟁에 의한 자유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하려는 의도로써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수입관세율을 인하하고 최고수입관세율을 하향조절하는 등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주요 경제지표

구 분	1989	1990	1991	1992
GDP 증가율(%)	0.9	0.3	3.5	2.4
인 구(백만명)	418	426	434	442
상품수입(억불)	816	944	1,115	1,320
상품수출(억불)	1,111	1,218	1,213	1,261
총외채액(억불)	4,254	4,409	4,426	4,509

III. 중남미 무역구조

- 상품수입 1990년 이래 연 18% 이상 증가
- 무역수지 1992년 적자로 반전
- 석유수출국의 무역 활발

1. 수입시장

중남미국가의 수입시장은 금액 및 물량기준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석유수출국인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쿠아돌, 볼리비아 등은 연간 수입증가율 20% 이상을 기록하였다. 한편 비산유국중 중미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등은 수입증가율이 13% 내외이며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991년에 98.6%, 1992년에 76.6%의 현저한 수입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중미 및 카리브해국가들도 1990년 이래 10% 내외의 수입수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수입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추세는 중남미 각국이 시장개방을 추진한 결과로 보이며 세계경제가 1990년대에 침체경향을 보이며 세계무역증가율이 2~3%선에 머무른 점을 감안할 경우 중남미의 수입성장율 18%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남미국가들의 수입증가율

분 류	1990		1991		1992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석 유 수 출 국	21.5	15.9	22.2	16.9	20.6	19.1
비 석 유 수 출 국						
- 남미국가	11.1	6.9	14.1	18.3	17.0	16.5
- 중미카리브국	7.9	3.6	13.2	10.4	12.2	10.3

주) 석유수출국: 멕시코·베네수엘라·콜롬비아·페루·에쿠아돌·볼리비아 비석유수출국

- 남미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칠레·파라과이·우루과이

- 중미카리브국: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테말라, 하이티, 파나마, 도미니카(공), 니카라과, 온두라스

2 중남미 국가별 수입현황

석유수출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연평균 22%의 수입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992년에는 총 716억불을 수입하여 1991년의 593억불 대비 21%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 21%내외의 수입시장이 확대되었으며 1992년의 수입금액은 1987년 수입금액의 약 2배 규모인 460억불을 기록하였다. 1992년중 수입증가분은 1991년 수입액의 22.0%에 해당하는 80억불로써 중남미 전체 수입증가분의 40%를 차지하였다.

베네수엘라는 1989년부터 시행된 경제자유화계획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1991년 5월 최고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이 급증하였다. 즉 1990년에 수입증가율이 6.5% 감소하였으나 1991년 및 1992년에 각각 48.4%, 25.3% 증가하였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총 수입규모는 약 127억불에 달한다.

콜롬비아는 1991년부터 단행된 수입개방효과가 199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동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10억불 증가한 56억불에 달하였다.

한편 비석유수출국중 남미국가의 수입시장은 1990년 이후 14%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수입신장세가

두드러진 국가는 아르헨티나로써 1991년에 98.6%, 1992년에 76.6% 등 급속한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시장개방이후 내수증가로 수입시장이 급팽창중에 있는데 1992년의 총 수입규모는 131억불로써 1990년의 약 2.8배에 달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정치적 소요 및 국내 경기침체로 수입시장이 축소되어 1992년에는 전년대비 4.3% 감소한 210억불 규모였다. 그리고 칠레는 경기활성화 및 외자도입 증가로 소비재, 자본재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1992년의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4.7% 증가한 91억불에 달하였다. 중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1990년대 평균 수입성장율은 11%로써 1992년에의 총 수입액은 148억불에 달하였다.

3. 중남미국 무역수지 분석

중남미국은 1993년 이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왔으며 흑자규모가 1990년에는 274억, 1991년에는 98억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59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멕시코·베네수엘라 등의 석유수출국은 석유수출가의 안정으로 수출액은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수입액은 급증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중남미국의 주수출품인 커피·원면 등의 원자재가 격의 안정이 지속되고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당분간 적자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1990년에 44억, 1991년에 111억, 1992년에 188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중남미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1980년대 이래 무역수지 흑자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줄곧 100억불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1990년 86억불, 1991년 46억불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시장개방 후 수입이 급증하여 1992년에는 34억불의 적자로 반전되었다.

중남미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중남미 총수출	1,218	1,213	1,261
중남미 총수입	944	1,115	1,320
무 역 수 지	274	98	-59

IV.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교역현황

- 대중남미 수출급속확대 (1991년 34%, 1992년 72%)
- 전기·전자·섬유·철강 및 경공업제품으로 확대
- 대중남미 수입은 상대적으로 정체 현상

1.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은 1990년에 21억불, 1991년에 29억불, 1992년에 50억불 급신장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990년 이후 선진국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남미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중남미시장에 대한 수출증가 요인으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관세인하, 사전수입허가제 폐지 등 시장개방 조치의 영향이 크며 아울러 우리나라업체의 대중남미 세일즈 강화, 주재상사의 현지진출 확대 및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참여 관심증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수입 현황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입은 수출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1992년에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5억불을 기록하였다.

수입 주종품목은 브라질의 철강과, 에쿠아도의 석유,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의 산업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중남미 수출입 실적

(백만불)

	1990	1991	1992
수출액	2,103	2,879	4,962
(증가율)	21%	34%	72%
수입액	1,726	2,298	2,521
(증가율)	12%	33%	10%
무역수지	378	581	2,441

3. 무역수지 현황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무역수지는 1980대에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이 본격화된 1990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1992년에는 우리나라와의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320% 증가하였다.

한편 대중남미 수출이 급증 추세임에 반해 수입은 원자재 등으로 한정되어 향후 흑자 기조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V. 향후 수출확대 방안

최근 중남미 수입시장은 각국의 시장개방 조치로 수출입 절차가 대폭 자유화되어 1990년대에 연 18% 이상씩 급신장하고 있으며 실질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확대되는 등 인구 4억2천만의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중남미 현지세일즈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시장으로서의 시장개척 단계에서 고유모델 및 자기상표로 자체시장을 확보하는 등 향후의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가전제품·생활필수품 등은 고유브랜드로 진출하고 현지 수요자의 패턴에 부응하는 자체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중남미는 1980년대의 정체를 탈피하기 위하여 공업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전기통신·자원개발·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대중남미 수출품목을 일반소비재에서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자본재로 전환하고 국제입찰 등에 적극 참가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남미국가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이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참가가 어려울 시에는 선진국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든지 우리나라의 동종업체간 연합으로 참가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투자진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향후 동 지역의 경제 통합이 완료되었을 경우 수출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 등에 적극 투자가 요망되며 특히 현지에서 최근 공업화 추진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생산 판매로 시장을 선점하고 인근국 수출기지로서 활용하는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단독 또는 합작형태의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재산권 보호만이 기술개발을 앞당깁니다